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림책 만들기

제 출 자: 권윤서

지도교사: 양정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그림을 통해 간디인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학교생활에 지친 간디인들을 보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논문으로 내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인 그림을 선택했다.

이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색채심리에 관련된 문헌조사, 탐방을 진행했다. 조사한 색채심리를 적용해 그림을 구상하고 작업했다. 작품들을 편집해 전문가와 간디인들에게 평가를 받고 수정한 후, 인디자인으로 편집해 책으로 제작했다. 완성된 그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다, 부드럽다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평가에서는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편안함과 안정감이 잘 전달된다는 상반되는 평가를 받았다.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 1) 진행 계획

II. 본론

1. 편안함과 안정감
 - 1) 정의
2. 그림책
 - 1) 정의
3. 그림 제작
 - 1) 사전조사
 - 2) 작업과정
4. 작품 설명

5. 그림책 제작

- 1) 그림책 디자인

III. 결론

1. 평가
 - 1) 간디인 평가
 - 2) 전문가 평가
 - 3) 자기평가
2. 논문의 성과와 한계

<고마운 사람들>

<참고 문헌>

<부록>

I. 서론

1. 논문의 동기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장소이다 보니 인간관계 등 여러 문제로 지친다. 나도 그렇고 내 주위 친구들도, 선배들도 많이 그랬다. 쉬고 싶고 위로 받고 싶을 때 도와주고 싶다. 또한 이번 논문으로 나의 감정도 표현하고 싶다.

어떤 매체를 통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전할까 생각하다 그림이 나왔다. 내가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그림이었고 내 감정을 담아내고 편안함을 전하기도 그림이 가장 좋을 것 같았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안정감과 편안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매일 꺼내보고 싶은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

이 그림책으로 간디학교에 다니며 3년 동안 경험하고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고 그림책을 보는 간디인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2. 논문의 목적

내가 만든 그림책을 보며 편안하다는 감정과 안정감을 느꼈으면 한다. 봤을 때 여유로워지고 편안한 그림책이 되도록 한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익히며 그림의 수준을 높이고 발전하고 싶다.

3. 연구방법

1) 진행 계획

먼저 안정감을 주는 색, 그림들을 조사한다. 색채심리학, 미술심리치료에 대해 찾아본다. 그림 구상을 위해 탐방을 다녀오고 색채심리 등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제작한다. 종이에 그린 그림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작업 한다. 완성한 그림을 전문가와 간디인에게 평가 받는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작업을 마친 뒤 인디자인으로 책을 디자인한다. 그림책은 인쇄된 형태로 나올 예정이고 인쇄 전에 1차 평가를 받고 수정한 후 그림책으로 인쇄한다. 책의 분량은 B5기준 15장 정도로 완성된다.

II. 본론

1. 편안함과 안정감

1) 정의

편안함의 몸이나 마음이 편하고 좋다, 아무 일 없이 무사하다, 홀가분하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관련 논문¹⁾에서는 심신을 지치게 하는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얻게 되는 일종의 만족감으로서, 부드러움, 밝음, 경쾌함, 여유로움 등 삶에 대한 생기와 기쁨, 나아가 희망을 불어넣어 행복을 느끼게 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감정이라고 정의했다. 안정감은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느낌과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²⁾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여유로움에 중심을 두고자 하며 더 나아가 밝고 경쾌한 분위기, 걱정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2. 그림책

1) 정의

그림책이란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이다.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과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있다. 글이 없어도 그림책은 성립되지만 그림이 없으면 그림책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림책에서 그림은 불가결한 절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어른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책들도 있다.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책이 나와 있으며, 펼칠 때마다 입체가 되거나 동물의 눈·코 등 특별한 부분만을 입체화한 것, 미완성으로 되어 있어서 색칠을 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것, 글 없이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림책 등이 있다. ³⁾

본 논문에서 만들 그림책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그림을 중심으로 담은 것이며 아이들보다는 청소년, 어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그림 제작

1) 사전조사

그림책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사전 조사 단계로 책을 읽고, 탐방을 다녀왔다. 색채심리에 대한 정보는 김선현의 『그림의 힘』⁴⁾과 논문 (한유진 2008년도; 임누리 2009

1) 김현정(2006) 「편안함의 형상화 연구 : 인체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 네이버 사전.

3) 네이버 두산백과.

년도: 최윤영 2009년도: 이재진 2002년도⁵⁾)을 정리해서 쓴 내용이다.

(1) 색채심리

색채심리란 다양한 색채들을 접하는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색은 다양하다. 색채는 각기 독특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이미지나 연상을 떠올리게 한다. '녹색'을 보면 눈의 피로가 덜해지고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음은 각 주요한 색채마다의 특징과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① 빨강

빨강은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이고 일반적으로 유쾌한 색이다. 에너지의 활력과 개척 또는 새로운 시작, 동기부여, 자극을 뜻한다. 우리 신체에는 의지력과 활동성을 준다. 이러한 빨강의 원초적 에너지는 우리가 우울증이나 슬픔에 잠겨있을 때 이를 개선시켜 주는 효과로 나타난다.⁶⁾

② 주황

빨강과 노랑을 혼합한 색으로 두색의 성질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가 강한 색으로 '활발', '온화', '행운', '기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빨강의 강렬함은 따뜻함으로 노랑의 불안함은 편안함으로 바뀌어 주황에 묻어간다. 일반적으로 주황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연상되며 '안식'과 '여유'를 주는 색이다.⁷⁾

③ 노랑

노랑은 희망, 화사함 등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쾌하고 찬란한 느낌은 주며 영감을 자극한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지적인 능력, 논리력, 판단력등과 관련이 있어서 노랑을 적당히 사용하면 혼탁한 머리를 맑게 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④ 초록

희망, 신성함, 휴식을 연상시키고 감정을 진정시키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심리적

4) 김선현(2015) 『그림의 힘』 파주: 8.0 (에이트 포인트)

5) 이재진(2002) 「색채심리에 중점을 둔 정유회사의 칼라마케팅 현황에 관한 연구 : 국내 정유회사 칼라시스템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6) 한유진(2008) 「색채심리를 통한 얼굴표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7) 임누리(2009) 「색채심리와 색채치료 관련 연구 고찰」, 최윤영(2009) 「색채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배색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으로 거의 자극을 주지 않아 어떤 일에 집중해서 해야 될 때 적당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심리적인 면에서 초록은 스트레스 해소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정, 집중력 향상을 하게 해준다.

⑤ 파랑

파랑은 끝없이 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믿음'과 '침착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정신적 측면에서 스트레스 해소작용과 진정제의 성질로 작용된다. 평화, 청량감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풀어주며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편안함'을 주며 냉각, 진정의 효과가 있는 색이다.

⑥ 보라

보라색은 활동력이 저하되었을 때 마음이 끌리기 쉬운 색이며, '소생의 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신비'와 '상상력', '의지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라를 주위에 사용하면 깊이 있는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개성적', '상상력'을 유도한다.

⑦ 분홍

분홍은 고상하고 신비로운 색채이며 다정함, 온화함, 보호 본능, 편안함과 안정을 의미한다. 정서적인 면에서 연민, 애정, 사랑의 감정을 뜻하며 의식의 성숙함 또는 긍정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다.

⑧ 흰색

완전한 균형을 이룬 색이며 그 색채가 주는 느낌도 깨끗하고 자연스럽다. 흰색은 “깨끗함, 출발, 순수, 청결”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의 시작을 뜻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끝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작품에서는 편안함을 주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파랑과 보라, 다정함과 편안함, 안정을 의미하는 분홍, 따뜻함과 안식, 여유를 주는 주황을 중심으로 사용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의 작품들을 만들고자 한다.

(1) 탐방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두 곳의 전시회를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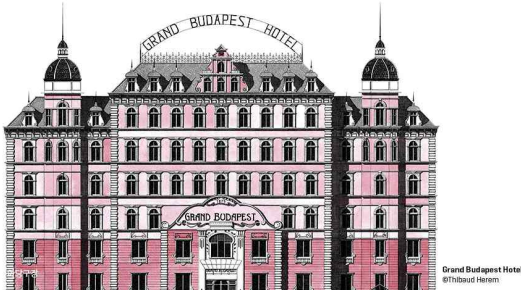


그림 1 티보 에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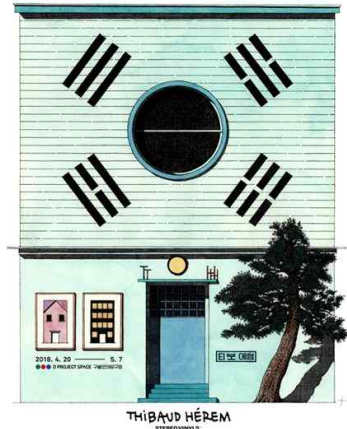


그림 2 티보 에렘 작품2

① 티보의 작업실 _ 티보에렘

구슬모아당구장 2018. 4. 21. - 5. 13.

티보 에렘은 프랑스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이다. 티보의 작업실이라는 전시회는 그림과 설치미술이 함께 있는 전시회였다. 들어가자마자 하늘하늘한 천에 그린 나무들이 걸려있었다.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린 나무와 건축물 그림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본 건축물과 티보 에렘의 상상력이 더해진 그림들이었다. 전체적으로 선이 얇아서 인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색도 빈티지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강한 원색보다는 연한 컬러 중심이었던 거 같다.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이어서 기억에 강렬하게 남진 않지만 계속 보고 싶은 매력적인 그림들이었다. 티보 에렘의 작품에서는 섬세한 부분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거 같다. 내 그림에는 섬세한 부분이 딱히 없었는데 티보에렘의 작품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려야하는지 감을 잡았다.

② 김환기 展

대구 미술관 2018.05.22. ~2018.08.19

추상그림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김환기 전시회를 보았다. 일본 동경시대, 서울시대, 파리시대, 뉴욕시대로 챕터가 나뉘져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동경시대의 그림이 가장 좋았다. 김환기의 그림은 정말 독보적이었다. 이 작가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 그렸는지 파악하는 건 어려웠지만 색, 점 하나하나에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전시회장을 돌아다니다가 김환기 작가님은 여러 도전을 많이 했다는 해설사분의 설명을 우연히 들었다. 그 곳에 전시된 작품 중 신문지에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정말 새로웠다. 그림 뒤로 보이는 신문지 글자들이 매력적이었다. 종이에 변화를 줘도 좋을 거 같다. 추상화는 나의 생각, 감정을 그림에 털어 넣는다고 생각하니 쉬웠다. 구체적인 모

숨에 나의 생각을 담는 것도 좋지만 선, 점, 색에 내 생각을 넣는 것은 것 또한 매력적이었다. 김환기 展을 보며 추상적인 그림에 대한 것도 많이 알았지만 색에 대한 생각도 뚜렷하게 잡혔다. 김환기 작품의 파랑색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참고해서 내 그림에도 파랑색을 넣었다. 하지만 김환기의 작품은 어두운 느낌의 파랑이어서 나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의 파랑을 추가하였다.



그림 3 김환기 작품1



그림 4 김환기 작품 2

2) 작업과정

보통 생활에서 예뻐 보였던 장면들 혹은 전시회에서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사진 혹은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그 후에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고 연필로 스케치하며 색채심리에 대해 조사했던 것을 바탕으로 색을 정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할지 종이에 작업을 할지도 정했다.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할 작품은 연필로 스케치 한 후 스캔해서 컴퓨터로 옮긴다. 옮겨서 포토샵 혹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을 따고 포토샵으로 불러와 채색을 한다.

종이에 작업 할 작품들은 스케치를 한 후 스케치 한 걸 보고 바로 채색 작업으로 넘어간다. 보통 8절 도화지에 작업을 했고 연필, 아크릴 물감, 수채화물감, 색연필을 이용해 그렸다. 완성한 뒤 스캔해서 컴퓨터로 옮기고 색감 등 다듬을 부분을 다듬는다.

작업한 작품들은 B5 사이즈에 맞게 편집해 인디자인으로 옮겨 책으로 디자인한다. 표지 그림을 제외하고 14개의 작품이 책으로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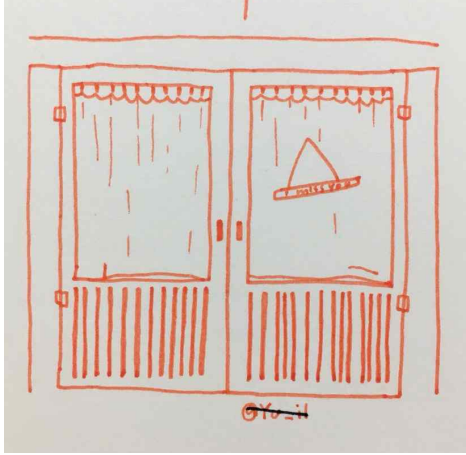


그림 5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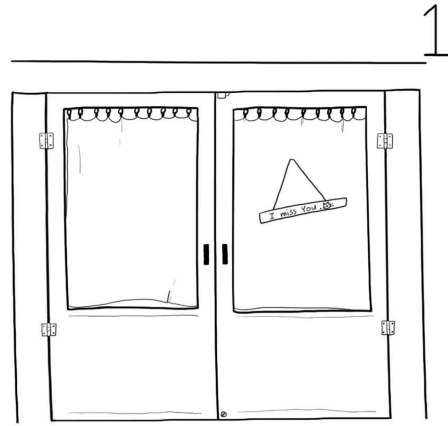


그림 6 선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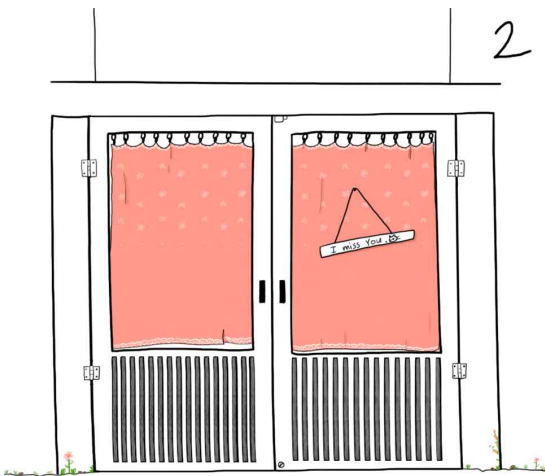


그림 7 채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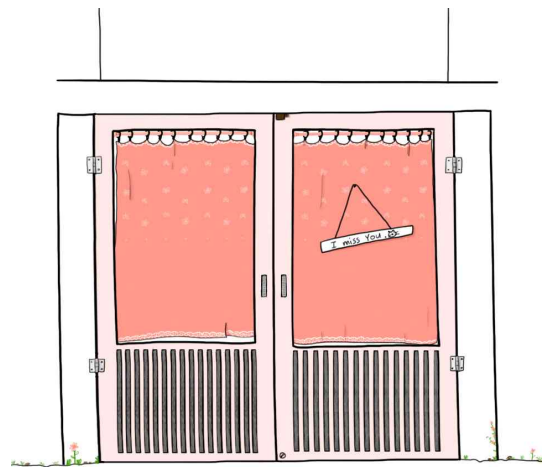


그림 8 채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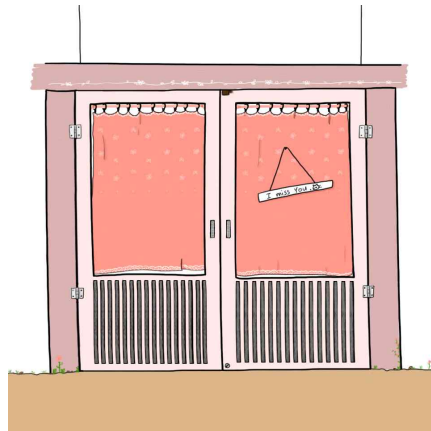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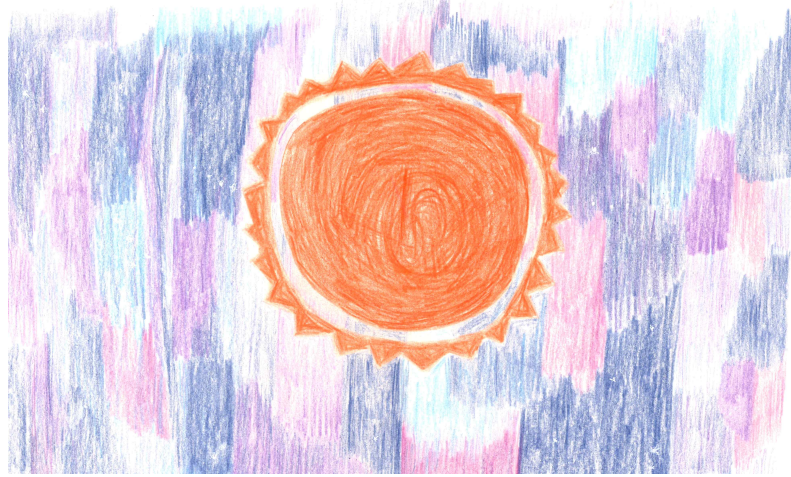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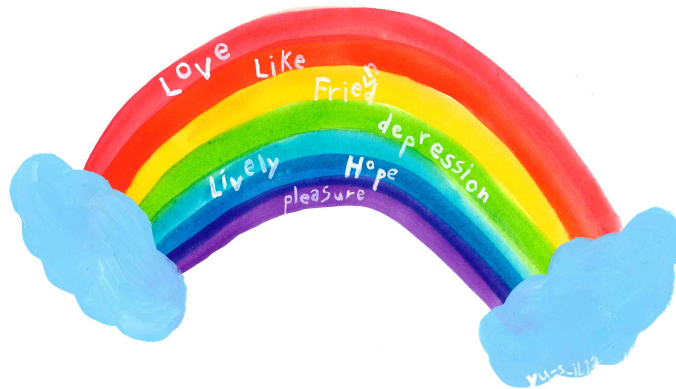
그림 9 완성

4. 작품 설명



(1) 꿈

꿈과 태양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가까이 있지만 떨어져 있고 늘 곁에 있지만 잡을 수는 없다. 태양도 꿈도 그 무엇보다 강렬하다. 뜨겁고. 햇빛만 받고 있어도 행복하듯이 꿈도 마찬가지다. 가지지 못해도 그 꿈을 품고 있기만 해도 오는 에너지가 있다. 꿈은 다가가면 멀어진다. 한가지를 이루면 다른 한가지가 생기고 목표는 점점 높아만 진다. 내가 지나왔던 목표들을 보고 행복함을 느끼는 시간도 필요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너무 앞만 보지말고 뒤도 돌아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2) 무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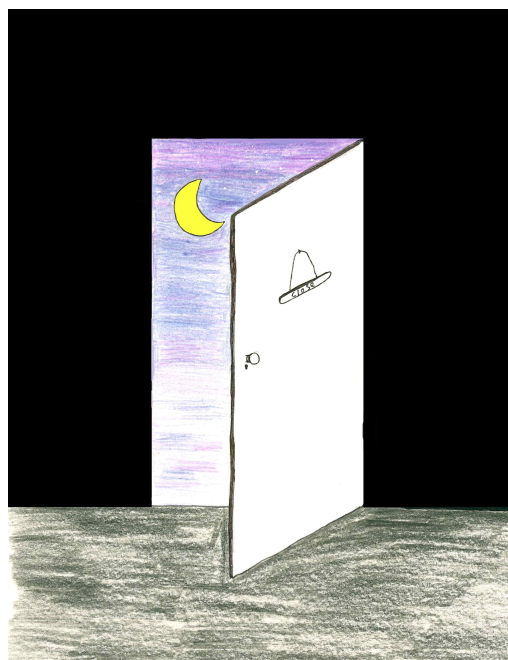
여러색이 모여서 무지개가 된다. 빨간색도 무지개이고 파랑색도 무지개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행복하지만 우울하고, 밝지만 어둡다. 행복과 우울, 기쁨, 슬픔, 밝음. 모든

게 모여 나 혹은 우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지만 동시에 우울하고 절망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한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색을 가지고 있다.



(3)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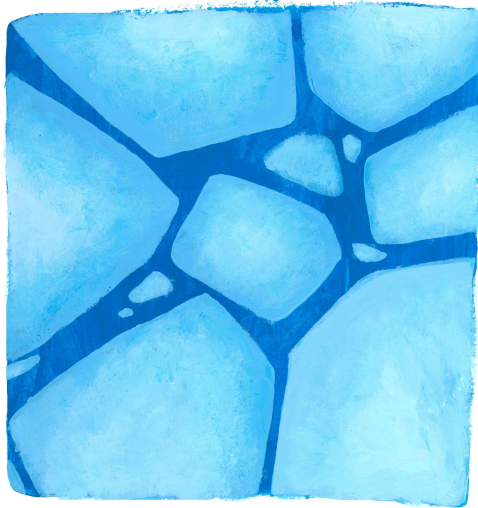
달은 혼자가 아니다. 밤하늘에서도 낮하늘에서도 별과 해, 구름과 함께 있다. 달 밖에 없어 보이지만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 별과 해가 보일 것이다. 눈 뜨기 전까지는 슬프더라도 언젠가는 밝아질 것이다.



(4) 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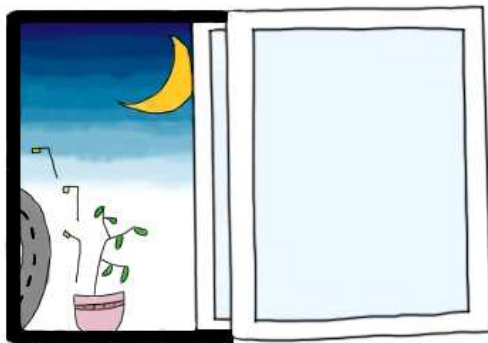
하루의 끝. 모든 걸 끝내고 꿈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모든 걸 내려놓고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루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으니 하루의 끝만큼은 가볍고 훌가분

하게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5) 얼음

지금은 깨져서 떨어져 있는 얼음이지만, 날이 따뜻해져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인간관계도 똑같다. 지금은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겠지만, 따뜻한 날이 오게끔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서서히 녹아 돌아가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 매달려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가끔은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다.



(6) 창 밖

가끔 잠이 오지 않아 밤을 새고 난 뒤 보는 하늘은 새롭다. 평소와 다른 하늘 색.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청량한 느낌의 색이다. 창문을 열면 내려앉는 가볍고 차가운 공기와 여러 소리들이 조용하게 들린다. 그 때의 행복감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7) 장화

비오는 날 물웅덩이를 보면 물 튀기며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럴 나이가 지났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가곤 한다. 한번쯤은 장소, 나이 신경 쓰지 않고 동심으로 돌아가 물 사이에서 뛰어놀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 지칠 때 가끔씩 동심을 꺼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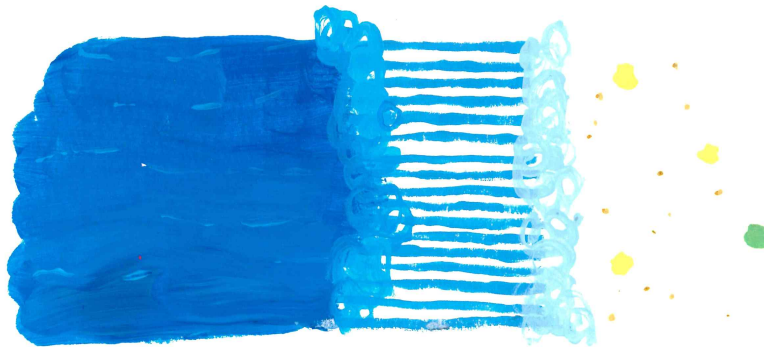
(8) 노을

하루 일과가 끝나갈 때 쯤 보는 풍경. 오늘 하루도 별 탈 없이 넘어갔다는 생각에 안심하거나 하루동안 쌓여있던 상처에 눈물 터트리며 보는 풍경이다. 어떤 상황이든 노을은 날 위로해준다. 내가 노을로 받는 위로를 그림으로 전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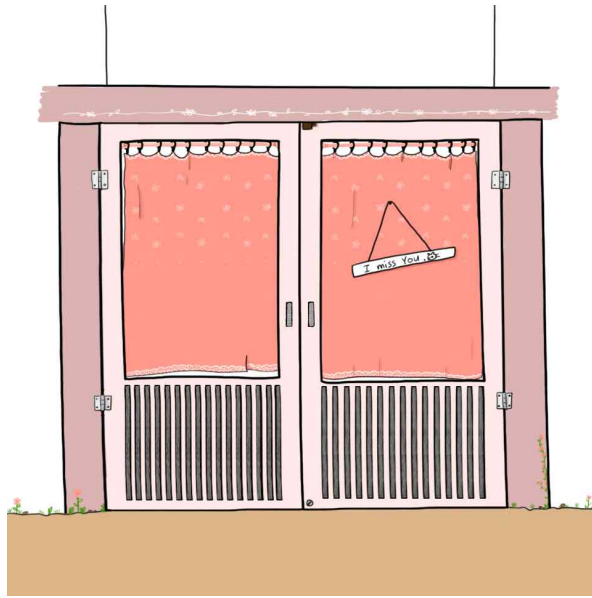
(9) 심장

꽃으로 가득 찬 심장을 가지고 있을 거 같은 사람들이 있다.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예쁜,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들. 그들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고, 꽃 같다고 생각했다. 나의 심장도 꽃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 누구에게나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10) 바다

몰아쳐오던 파도가 다 빠지기도 전에 새로운 파도가 몰아져 온다. 깊은 파랑색에 빠져들 듯한 파랑색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점점 열린다. 마침내 나에게 도착했을 때는 투명해져 물 밑에 있는 나의 발이 보일 정도가 된다. 멀러서는 짙은 파랑색이었던 바다가 사실은 투명하다는 건 겪어봐야지만 아는 사실이다.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겉에서 보이는 모습과 친해지고 보이는 안의 모습은 다르다.



(11) 그리움

누구에게나 그리워하는 무언가는 있다. 이 그림을 그리움을 그렸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에 받을 수 있는 따뜻함이 그리울 것이다. 곁에서는 차가워보여도 속에서부터 나오는 친구들의 따뜻함이 좋다, 집에 가면 늘 반갑게 맞아주는 엄마, 아빠의 따뜻함이 좋다.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나의 소중한 사람의 따뜻함이 좋다. 나중에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12) 구름

덕산은 맑은 날이 많다. 구름이 예쁜 날도 많다. 빠져들 듯 한 파란 하늘에 폭신해

보이는 흰색 구름. 하늘과 구름이 너무 순수해 나까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다. 멍하니 누워 구름만 보는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하다. 구름과 닮은 분홍색 솜사탕에 누워 있는 기분이다. 그래서 내 그림에는 구름을 솜사탕 같은 분홍색으로 표현하였다.



(13) 기숙사 올라가는 길

나무가 터널같이 자라 그 사이로 보이는 기숙사가 신비해 보인다. 나무 사이만 지나면 기숙사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하다.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 장소여서 그런지 기숙사 올라가는 길 중 제일 좋아하는 곳이다. 이 그림을 보고 기숙사 올라가는 곳에 대한 각자의 추억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14) 밤하늘구름색

밤하늘의 구름색은 오묘하다.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투명한 듯 투명하지 않다. 회색도 아니고 검은 색도 아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색이다. 구름 사이 사이로 보이는 별들과 달이 아름답다.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밤하늘을 한번 보고나면 기숙사에서 계속 여운이 남아있다.

5. 그림책 제작

1) 그림책 디자인

그림책 디자인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4학년 김재하에게 작업을 맡겼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디자인과 그림에 어울리는 글 혹은 단어를 정해 넘겨주었다. 글이 폰트 보다는 손 글씨와 더 잘 어울리 것 같아 손 글씨로 일러스트작업을 해 넘겨 주었다. 표지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으로 검정색으로 디자인 하였고 속지는 그림과 어울리는 색으로 장마다 다르게 디자인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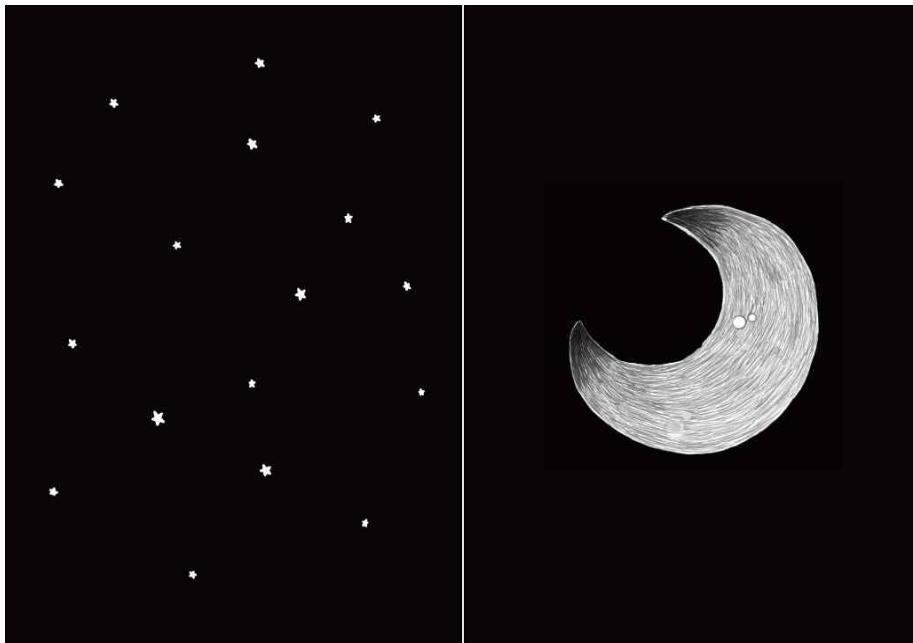


그림 24 - 앞표지(오른쪽) , 뒤표지(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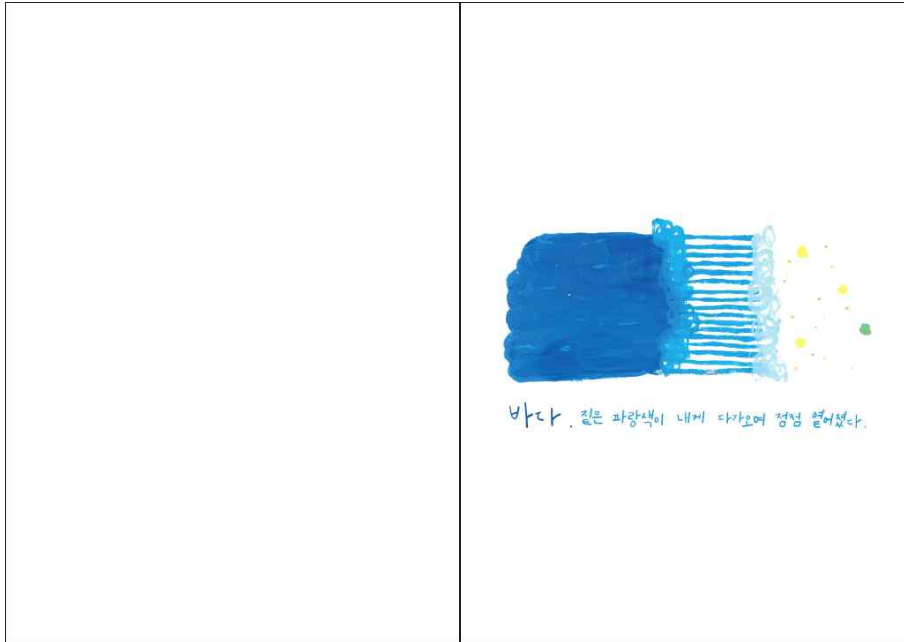


그림 25 속지

그림 제목과 함께 그림과 어울리는 글을 넣었다. 바다라는 그림에는 ‘바다. 짙은 파랑색이 내게 다가오며 점점 열어졌다’라는 글을 넣었고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 흰색이어서 배경색을 흰색으로 정했다.

III. 결론

1. 평가

1) 간단인 평가

(1) 작품 발표회 평가

-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 분홍 솜사탕 같은 그림이 마음에 든다.
- 순간에 대한 관찰과 사물에 대한 관심이 잘 녹아있는 그림이 좋네요. 그림에 대한 짧은 소개가 논문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 윤서만의 독특한 표현감이 전해진다.
- 그림이 예쁘다.
- 나의 심장도 꽃으로 뒤덮히고 싶다.
- 문 열리는 그림이 예쁘다.

- 검은 색 달에 앉아 있는 여자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지 궁금하다. 슬픈 느낌이다.
- 그림을 표현할 때 다양한 도구(물감, 연필뿐만 아니라)로 접근해보는 건 어떻게 차분한 색감에 세밀화처럼 표현한 꽃다발 그림(심장) 특히 좋았다.
- 의도 되어진 여백 속에 꼼꼼히 그려진 오브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집중해서 보는 가운데 미소가 지어지네요.
- 다양한 스타일이 돋보였다. 윤서만의 한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내면 더 멋진 작품이 나올 꺼라 기대된다.

(2) 그림 그리는 간디인 평가

작품 발표 때 받은 평가만으로는 부족해 학교에서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16학번은 제외했고 14학번부터 18학번까지 4명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① 18학번 강태경

- 전체적인 평가

마음이 따듯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색감이 단조롭고 단순하며 또렷한 색깔이 많아 기억에 잘 남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감의 작품과 밝은 색감의 작품이 나누어져 있어서 더 많은 색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다.

그림의 시선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건물 안에서 자연풍경을 보는 그림이 많아서 시선이 밖에서 안쪽을 보는 시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만큼 그림이 특별하기도 했고 예뻐서 딱히 나쁘진 않았다

달을 그린 작품이 상당수였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알고 싶었다.

작품명	달다
이유	하루의 끝을 잘 표현한 것 같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힘들었던 일들과는 서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 그림에서 가장 표현이 잘 되어있는 것 같고 가장 와 닿았다. 까만 배경과 문 사이로 나오는 보랏빛 하늘이 너무 단순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아 오히려 더 예쁜 것 같다.
작품명	밤하늘구름색
이유	밤하늘의 떠있는 구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다 해가지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더 가깝고 친한 존재여서 굉장히

	<p>친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p> <p>단순한 색깔만을 사용했지만 그래서 더욱 예쁜 것 같기도 하다</p> <p>어두운 밤하늘을 표현한 것 임에도 탁한 느낌 없이 단조롭게 표현되어 있어 더욱 깔끔하고 예쁜 것 같다.</p> <p>달을 표현했을 때 흰 색이 아닌 다른 색을 활용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p>
--	-------------------------------------------------------------------------------------------------------------------------------------------------------------------------------------

② 17학번 이담

• 전체적인 평가

위로를 받았다. 잠시나마 본 그림에서 많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에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보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특히 색이 그림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다 다른 재료로 색을 표현한 것이 그림의 느낌을 더 부각 시켜준 것 같다. 색에 신경을 쓴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면서도 편안했다.

공감을 정말 많이 했다. 생활하면서도 이 그림들을 떠올리며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느낀 감정을 갖고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려낸 것에 대단한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간디인들이 그림을 보고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작품명	얼음
이유	<p>처음에 그림만 봤을 때 되게 차갑다는 생각을 했다. 공감복이라고 했는데 외롭다는 느낌을 받아 되게 궁금했던 그림이었다. 학교는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라 학교에 오면 인간관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진다. 인간관계가 학교 생활에 많이 미치는 만큼 고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p> <p>전하고픈 말을 얼음으로 대체해 표현한 것이 좋았다. 특히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을 얼음이 녹아 다시 물로 만난다는 것이 좋았다.</p> <p>그림을 보고 얼떨결에 고민이 해결이 된 느낌 이었다.</p>
작품명	기숙사 올라가는 길
이유	<p>가장 공감을 많이 그림이다. 보면서도 추억들이 생각나 재미있게 보았다. 나도 나무가 터널처럼 쳐져있는 그 장소를 신비롭게 느꼈다. 할 일을 다 마치고 올라갈 때 껌껌한 밤 나무터널 사이로 가로등에 비치는 기숙사가 너무 예뻐보였다. 기숙사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기쁨에 시공간을 넘는다고 막 판타지에 나올법한 행동을 친구들과 취하곤 했었다.</p>

③ 15학번 하정민

• 전체적인 평가

따뜻하고 시원한 색감의 그림이 많아서 보기에 편안하고 예쁜 책을 보는 느낌이어서

재밌게 봤어요. 보면서 나도 한 번 씩 해봤던 내용이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정말 그림이 많았어요. 그림이 공감이 가니까 더 재밌고 오래 생각을 하면서 본 것 같아요.

글과 함께 읽으면 그린사람의 의도를 알기 쉬웠는데 설명 없이 그림만 있다면 이해하기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는 내내 공감이 되게 정말 잘 그렸다는 생각을 했고 완전 수고했어요!

작품명	얼음
이유	다들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특히 우리학교는 하루 종일 다 같이 생활하니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나도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너무 어려웠다. 지금도 인간관계는 어렵고 죽을 때 까지 어려울 것 같다. 이 그림의 설명글이 정말 와 닿고 힘이 들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깨진 얼음을 인간관계로 표현한 것이 완전 잘 한 것 같고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평소 많이 생각하던 주제라 공감이 가고 마음에 들었다.
작품명	바다
이유	처음엔 첫 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으로 많은 사람과 친해질 기회가 없어진다. 첫인상이 무섭고 첫인상이 말이 없고 조용해서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알고서는 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편견들이 다 사라진다. 진짜 친해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바다의 시원한 파랑색과 노란색 동그라미가 같이 있는 것이 반짝 거리는 느낌이었고 예뻐다.

④ 14학번 이재형

- 전체적인 평가

그림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 평소 지내면서 나도 몰래 지고 있었던 것, 숨겨야 했던 것들을 그림을 보면서는 내려놓게 된 것 같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던 유치한 꿈이나, 고민이나, 부러움이나. 그런 걸 숨기지 않는 이 그림들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 그림을 그린 사람이 '편안하겠다.' 느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위로가 되는 것도 있어. 관계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도 그렇고 내가 좋게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이 그림을 보며 떠올라서 그렇기도 하고. 내가 꿈꾸는 순간들과 감정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는 것 같아. 아, 그림도 그렇지만 글을 읽으며 봤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더 커져. 근데 정말 편안해. 너무 깊은 생각이 들지 않고 후회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지도 않고.

작품명	얼음
이유	먼저! 그림이 맘에 들었어. 빙하같아 빙하. 내가 북극곰을 좋아해서 그런

	가. 색감도 맘에 들어 참 차분해. 색칠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 나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사실 나는 글이 너무 좋았어. 그림의 색만큼 차분해서 아니 보는 내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거야. 나는 관계 속에서 즉각적으로 갈라지는 빙하의 사이를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날이 따뜻해져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 되게 기분이 좋았달까. 왜냐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치그치하기도 하고 해서.
작품명	바다
이유	나는 이 그림이 제일 좋아. 바다여서 좋기도 하지만 바다가 아니더라도 이 그림이 좋았을 거야. 왜 좋을까... 한 부분 한 부분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그냥 저 그림이 좋은 거야. 노란 점들이 특히 맘에 들기는 하지만 어디가 더 좋다 할 수도 없어. 그냥 저 그림이 좋은 거니까. 표현이 좋다고 느껴.

2) 전문가 평가

(1) 노상호 (일러스트레이터, 혁오 앨범 재킷 작업)

어쨌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평가를 해달라고 하셔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학생분이라고 하시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달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묘사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재료의 특성이 더 느껴져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구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톤이나, 기본적인 미술적인 기술들? 이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제 취향일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보자마자 '어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별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림은 진열되어있는 상품처럼, 옆의 다른 그림들과 경쟁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첫째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별로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품을 쏘아서 말씀드리자면 '얼음' 이 큰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컬러와 분위기에 중점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결국. 컬러로만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그림은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음 이라고 하면. 차갑던지. 글에서 쓰신 것처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이던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파란색' 으로 느껴진달까요.

원인을 찾아보려면, 저는 '빛'을 표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색깔을 표현 해주시면. 얼음을 그리시면 서도 어떤 심상을 넣기에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라는 것을 조명이 어떻게 싸지는가? 로 바뀌서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말은 했지만, 역시 제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으신 길을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문을 위해 필요하신 것이겠지요!)

(2) Warmgreyteil (일러스트레이터)

전체적인 평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그림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림을 공부하는 학생때는 여러가지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권윤서 님은 하늘 풍경을 특히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표현 한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두 그림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각각의 그림이 개성이 뛰어나서 좋았습니다.

한가지 주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몇가지는 그림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림책 만들기>라는 주제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두운 색감에서 오는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작품 설명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 설명이 그림에 충분히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표현 방식에 있어서 덧붙이자면 그림에서 사물이 전부 평면적으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어떤 그림들은 입체감이 있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체적인 사물을 디테일하게 표현해 봄으로써 훗날 자신이 진짜 원하는 표현방식을 구축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림 평 :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림책 만들기'라는 주제를 느낄 수 있는 두가지 그림을 골라 보았습니다.

1. <구름>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시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공감각이 느껴집니다.

구름의 모습을 실물 그대로 표현해 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 한 것이 돋보입니다.

핑크와 블루의 두가지 컬러를 사용하여 여러번 덧칠하는 표현방식으로 그림으로써 몽글몽글한 촉감과 달콤한 후각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구름을 표현하지 않고 구름의 단편을 그림으로써 그림 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림책 만들기'라는 주제에 잘 맞아 보입니다.

→ 이 그림은 아쉽게도 작품 설명이 없네요.

2. <밤하늘, 구름, 색> 이 그림은 검정색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름은 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의 <구름>이라는 제목의 그림과는 색상, 구도, 그림을 표현 하는 방식이 아주 다른 그림으로 같은 주제의

두 그림을 비교하여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색감으로 표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치 자체에서 오는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림책 만들기'라는 주제가 잘 보여 집니다.

2) 자기 평가

계획했던 목적을 이룬 거 같다. 일단 색채심리 등 여러 이론을 적용한 그림책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평가해주었고 나도 색채 부분에서 만족한다. 여러명에게 평가를 부탁했는데 전문가와 간디인의 평가 내용이 많이 달랐다. 같은 곳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간디인들이 내가 그림에 담은 생각을 잘 이해했던 거 같다. 특히 얼음이라는 작품에서 전문가와 간디인의 관점의 차이가 잘 드러났다. 간디인에게는 좋은 반응이었고 전문가에게는 좋지 않은 반응이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마주치며 한번쯤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더 쉽게 공감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작품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평가 받은 내용을 수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전문가 평가에서 받은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계속 걸린다. 간디인을 대상으로 그렸지만 다른 사람들도 공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나의 생각을 넣고 색채에 집중하느라 전달력이라는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원래 계획했던 편안함과 안정감을 전해주는 것이 잘 이뤄져 만족스럽다. 낙서에 머물러 있던 그림으로 주변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줬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이 논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만들고 싶다. 논문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줬다.

2. 논문의 성과와 한계

논문을 통해 그림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간디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그림책을 본 간디인들이 공감하고 편안함을 느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지치고 힘들 때 그림책을 보고 에너지와 따뜻함, 부드러움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간디인을 대상으로 그렸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그림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전해줄 수 있었지만 나의 생각이 잘 녹아들지는 못했던 거 같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논문을 쓰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 편안함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있다. 감을 늦게 잡아 색채심리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편안함을 전달하는 다른 방법은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색을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색이 따뜻하고 바라던 대로 나와 전하고자 하는 게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몇 개의 작품은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색이 날아갔지만 말이다.

원래 논문 계획 단계에서 구상했던 그림책의 분량은 25장이었지만 완성된 그림책의 분량은 14장이다. 작품의 정체성을 늦게 잡아 시간이 부족해 15장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이론 외 간디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간디인들이 편하게 느끼는 색채, 혹은 다른 것들을 알아보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다.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나의 논문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인 편안함과 안정감 전해주기가 잘 이뤄져 만족한다. 논문이라는 과정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마운 사람들>

먼저 논문 다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담당교사 정호쌤
인디자인 편집해준 김재하
정성스럽게 평가해준 분들
그리고 엄마 아빠 다들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 김현정(2006) 「편안함의 형상화 연구 : 인체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임누리(2009) 「색채심리와 색채치료 관련 연구 고찰」, 최윤영(2009) 「색채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배색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선현(2015) 『그림의 힘』 파주: 8.0 (에이트 포인트)
이재진(2002) 「색채심리에 중점을 둔 정유회사의 칼라마케팅 현황에 관한 연구 : 국내 정유회사 칼라시스템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한유진(2008) 「색채심리를 통한 얼굴표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부록>

1. 일지

2018.04.09

처음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다. 목적이랑 동기만 적으라고 했는데 다 적진 못했다. 확실하게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 어려웠다. 몇일 안 남은 논문 계획서 발표가 벌써부터 걱정된다. 일지도 처음이고 계획서도 처음이고 다 처음하는 거여서 막막하다. 예전에는 논문이 그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어렵다... 일지에 적을 게 어렵다는 말 뿐이다.

2018.04.25

발표는 언제해도 떨린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더 떨렸던 거 같다. 7번째, 내 순서가 올 때 까지 아무것도 못 들었다. 내 순서가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서 다른 친구들의 논문도 귀에 들어왔다. 현호가 ppt를 못 준비해 6번째로 발표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떨어서 말을 계속 더듬고 내용도 많이 빠트렸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거 같다.

바쁘게 준비해 오던 계획서 발표가 끝나니 기분이 씩씩하다. 빨리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인다. 이번주 주말에 티보의 작업실이라는 전시회에 갈 생각이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빨리 움직여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논문 본발표까지 남은 시간이 6개월이다. 그 안에 작품과 본론, 결과까지 완성하려면 너무 힘들 거 같지만 최대한 완벽하게 하고 싶다.

2018.04.28

북캠핑을 마치고 병곤 썸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6시에 일어나서 서울가는 길에 계속 잤다. 혼자 서울에 가는 건 처음이어서 조금 떨렸다. 한남동에 있는 구슬모아당구장에서 1시부터 전시회를 시작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남은 시간에 동묘를 다녀왔다. 동묘에서 다시 전시회장으로 오늘 2시정도였다. 생각보다 전시회 규모가 작았다. 그림만 있는 전시회가 아니라 영상 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었다. 티보 에렘의 그림은 세밀하고 왜인지 모르게 비현실적이었다. 물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너무 섬세해서 사람이 그린 그림이 맞는 지 헷갈렸다.

사이다를 사서 전시회 안에 있는 벨벳 쇼파에 앉아 한참동안 그림을 그렸다. 티보에렘이라는 분이 할아버지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분이였다. 전시회 관람 내용은 나중에 정리해야징

2018.05.21

오늘 아침열기 때 정호쌤이 엄청 재촉했다. 면담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한 게 없어 면담하기가 두렵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진 않았다. 아이디어 기록도 하고 있고 포토샵도 손에 익히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보다는 포토샵이 더 편하다. 이제는 재료 탐색도 하고 설문지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귀찮다

2018.05.29.

첫 그림을 완성했다. 책에 담을 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던 느낌이 잘 나왔다. 하늘이 생각처럼 표현되어서 행복하다. 아직 선이라던가 수정할 점이 조금 있지만 첫 포토샵 작업한 게 이 정도라면 만족한다. 내일은 그려줬던 그림들을 스캔 해서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작업해봐야겠다. 김재하가 포토샵 단축키도 알려줘서 더 수월해졌다. 본문도 쓰기 시작했는데 어렵다. 재형오빠 논문 보고 있는데 새삼 대단하다. 진짜 짱이다.,

2018.05.30.

오늘은 장미꽃을 완성했다.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림이 너무 잘 나와서 기대했는데 컴퓨터 작업하니 생각보다 별로여서 실망했다. 어제 그린 그림에 비해 진행속도는 엄청 빨라졌다. 오늘 하루만에 선 따고 채색까지 다 완성했다. 빨리 완성한 건 뿌듯한데 그림은 별로여서 슬프다. 장미꽃에 그라데이션을 줬다가 그냥 한색으로 바꿨다. 그라데이션이 예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다. 컬러가 별로인 건지 흑백으로 바꿀까 조금 고민된다. 오늘 정호쌤과 면담도 했다. 설문지 돌리는 방식이 별로여서 1:1 인터뷰는 어떨까해서 쌤한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었다. 인터뷰는 전교생 중에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천 스와치나 컬러칩(?) 같은 걸 구해서 물어볼려고 한다. 명도, 컬러, 선, 촉감 정도로 물어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3학년들은 다 인터뷰할 생각이 다. 쌤이랑 면담하고 나니 조금 더 명확하게 틀이 잡힌 느낌이다. 전체적인 책의 컨셉도 정하고 촉감도 연구해봐야 할 것 같다. 내일은 본문 좀 쓰고 그림 한 개를 그려서 완성할려고 한다. 논문이 생각보다 재밌다. 엄청 즐겁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2018.07.04.

무빙동안 논문을 안 쓰고 있다가 오랜만에 논문을 썼다. 학교에 오니 분위기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작품은 계속 만들고 있지만 본문은 감이 안 잡힌다. 미술수업에서 전에 구상해줬던 그림들을 옮겨 그리고 있다.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있어 짜증난다. 평면적인 그림들은 어느정도 완성했지만 입체적인 그림들을 아직 구상

하지 못했다.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해야겠다. 오늘 안에 미술수업 때 그린 그림을 포토샵으로 작업해 완성하는게 목표다.

2018.07.05.

오늘도 미술 수업에서 그림을 그렸다. 소재가 떨어져서 그리기가 힘들었다. 촉감에 대해서도 개발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 본문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본문이 재밌는 거 같다. 으아아아아 행복한 3학년 오늘 3교시에 논문수업이다 두렵다 너무 더워서 짜증난다아

2018.07.08.

어제 깡지뿔이랑 논문 얘기를 하고 엄청 혼란스러워졌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컬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책으로 만들었을 때 컬러감과 질감이 잘 나타날지가 모르겠다. 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인데 아무래도 필요할 때 볼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작품의 형태를 바꿀 수 있어서 다행이다. 본문을 쓰면서 충분히 조사해 보고 결정해야 겠다. 깡지뿔이 그림 추천도 많이 해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줘서 짱 행복하다. 탐방 갈 곳도 생겼다. 방학 때 가야지

2018.07.30.

일지를 자주 써야지 하고는 귀찮아서 못 쓴 거 같다. 펜으로만 그리다가 이번에는 아크릴을 사용해서 그렸다. 물감의 거친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아크릴 물감으로 하니 딱! 그 느낌이 나왔다. 아크릴 느낌 덕분에 트럭 그림이 아주 쉽게 완성됐다. 하지만 원하던 느낌이 조금 덜 나고 허전한 느낌이 나서 어떤 걸로 채울지 고민중이다. 다리 그림은 수채화로 그리다가 별로여서 크레파스로 다시 도전중이다. 회색만 하니 밋밋해서 어떻게 그릴지 고민중이다. 그냥 펜으로 그리는 그림들도 계속 그리고 있다. 방학 중에는 그냥 종이에다가 완성해두고 개학하고 컴퓨터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일단 방학동안 그림들은 다 완성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8월에는 정말 빠르게 해야겠다.

2018.08.09.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 펜으로 그리는 그림들은 꽤 많이 그렸다. 그런데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은 다리 그림에서 막혔다. 다리는 다 그렸는데 구름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 일단 다른 그림부터 그리고 다리 그림을 완성해야겠다. 입체 그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스트레스 해소라는 주제도 잘 모르겠다. 점점 산으로 가는 기분이다.

2018.08.15.

아무것도 안했다. 하항ㅎ 촉감복은 아닌 거 같다... 주제도 바꾸고 싶다...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게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나

2018.08.18

그림은 그려야 할 거 같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 일단 따뜻한 느낌으로 그릴려고 한다. 그리고 있다. 지금 심장이라는 작품을 그리고 있다. 사실 이게 제목은 아니다. 이 그림은 마음에 꽃이 피었다는 뜻이다.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어떤 색으로 채워나갈까? 따뜻한 느낌이 가장 좋을 거 같아서 봄 톤의 확장품을 보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톤의 컬러들이 들어갈 거 같다.

2018.08.25.

학부모 교육 때문에 하루 빨리 학교에 들어왔다. 바로 기숙사에 올라와서 규리랑 밥 먹고 공부방으로 갔다. 확실히 학교에 오니 집중이 잘 되는 거 같다.

I miss you (가제)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금 색을 칠하고 있고 핑크색으로 컨셉을 잡았다. 작은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서 러블리하고 편안한 분위기이다. 제주도에서 문 달힌 가게를 보고 떠올랐다. 언제나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안식처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학이라니이이이 |

2018.08.31.

오늘은 그림을 조금 그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9시부터 잠을 잤다. 오늘은 선이 매끈하게 마무리 되지 않아 너무 짜증났다. 그래서 내일로 미뤘다.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을 거다.

2018.09.04.

오늘은 수영복 그리고 있는 걸 마무리 지었다. 선이 깔끔하지 않아서 마음에 안들지만 일단 마무리했다. 이 수영복 그림은 맑은 느낌으로 그렸다. 그림만 봐도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는 그림이 될 수 있게 구상했다.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주도 바다를 떠올렸다. 오늘은 그림을 많이 그리진 않았지만 어제 많이 했으니 괜찮을 거다. 내일부터는 좀 더 많이 그려야겠다. 중간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았는데 그림의 힘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내 논문에 도움이 될 거 같다.

2018.09.09.

그림의 힘이라는 책을 주문하는 김에 색채심리학 책도 같이 주문했다. 작품을 얼른 얼른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바쁘다. 너무 귀찮다. 제발 폭 자는 게 소원이다.

2018.09.10.

큰일났다 14일에 세미나인데에 ppt 만들어야하는데에 하하하 귀찮다,, 아니다 재밌다 행복하다 논문 만세 바뀐 주제 계획서도 열심히 쓰고 있당 하루만 편하게 놀고 싶다.

2018.09.14.

논문 세미나 했다 본문도 제출해야한다니이 하나도 안썼다. 괜찮다 사실 비장의 무기가 있다. 오늘 세미나하고 받은 피드백을 빵카페에서 수정했다. 흰배경에 검은색 글자인 정말 베이직한 테마를 사용했다. 중간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제 바뀐 것도 넣어야 한다. 벌써부터 손에 땀이나기 시작했다.

2018.09.18.

중간발표했다. 속이 후련하다. 행복하다. 질문을 받았던 거 같다. 뭐라고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받아적었다. 적다가 내 펜을 잃어버렸다. 2,000원짜리 인데,, 어쨌든 너무 부끄러웠다. 얼굴은 빨개지고 정신없고 발표도 엄청 못했다. 내일까지만 놀고 일해야지 후행 행복해

2018.09.24.

신나는 가정학습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늘은 구름 그림의 파랑색 배경을 그렸다.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더니 예쁘다면서 비웃고 갔다. 흥 집에 오니 그림이 잘 그려진다 역시 집이 짜세다. 작품이 술술 나온다.

2018.09.25.

집에 있으면 침대에만 붙어있게 된다. 이런,,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그림을 그린다. 오늘은 구름을 그렸다. 핑크색으로 그렸는데 아주 폭신하게 잘 그려졌다. 베리매우만족쓰

2018.09.26.

흐흐 28일에 서울간다. 그 전까지 작품 완성해야징 오늘도 열심히 그렸다. 뿌듯한 걸 오늘은 아빠랑 물감 사러 갔다. 아크릴 물감 6개를 사고 떡볶이를 살려고 1시간 30분동안 탐험을 하였다. 김밥도 먹었다. 물감도 먹었다. 농담이다. 오늘 산 물감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바로 초록 덕산을 그렸다. 처음 써보는 물감인데 아주 괜찮았다.

2018.09.27.

내일은 서울 가는 신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징 아주 잘 그려졌다. 퍼펙트
오늘은 바다를 그렸다! 인간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사람을 곁에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담았다. 파랑색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행복하다. 빨리 자야징

2018.10.01.

오늘은! 10월 1일! 이니깐 하루만 설까 생각했지만 열심히 논문을 썼지! 왜냐 이번주가
작품발표니깐----! 호우 (주의보) 너무 졸립다. 그래도 공부방에 가서 그림을 그렸다.
오늘의 그림은 태양이었다. 근데 짝끔 마음에 안 든다.

2018.10.5일에서 6일 사이

요즘 일지를 많이 안 썼다. 너무 바빠서 쓸 시간이 없었지만 오늘 드디어 시간이 생겼
다. 권윤서 인생 처음으로 오늘 밤을 새고 있다. 사실 졸립지는 않다. 곧 뜨거운 물로
샤워할 생각에 행복하다. 작품도 열심히 그렸다. 달다라는 그림을 다듬고 다시 그리기
시작한 태양을 완성했다. 너무 뿌듯해,, 이제 씻어야지 안놓

2018.10.08.

본문을 써야하는데 힘들다. 하루는 쉬어도 되겠지. 그림 색채심리만 적어야지... 행복한
논문

2018.10.10.

작품 발표가 끝나고 너무 나태해졌다. 이러다 나태지옥에 갈 거 같지만 그 전에 부지런
해져야지 호호 오늘은 본문을 쓰고 있다. 진짜 너무 열심히 쓰고 싶었지만 너무 졸렸
다. 그래도 18일이 본문 제출이니 열심히 해야한다. 작품설명을 진심으로 열심히 쓰고
있다. 사실 전부터 구상해뒀던 게 있어 어렵지는 않다. 키워드를 짧은 글로 만들고 있
다.

2018.10.13.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열심히 논문을 쓰지 본문 제출일이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 충격,, 그래도 오늘 하루종일 썼다. 색채심리에 대한 내용과 작품 설명을 완
성했다. 색채심리는 해야할게 아직 조금 남아있다. 흰색과 주황색을 보충해야 할 거 같

다.

2018.10.16.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오늘은 5시에 일어나 6시에 내려와서 논문을 썼다. 이제 성과와 한계, 논문을 마치며, 그림책 디자인에 사진만 넣으면 끝난다. 내가 제출일 전까지 다 완성할 수 있을까? 다 완성해야한다. 제발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일상다반사에 평정위, 행사부 논문까지 진짜 너무 바쁘다 스트레스 받아,, 하루만 푹 자고 싶다.

2018.10.17.

논문이 끝나간다. 성과와 한계를 완성했고 디자인에 대한 내용도 다 적었다. 내일 전산실에서 출처만 찾아 넣고 고마운 사람들만 적으면 된다. 아이 신나. 다음주가 발표라니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난다. 오늘 정호쌤과 현호와 함께 11시까지 학교에서 논문을 썼다. 정호쌤이 얘기한 부분을 거의 고쳤다. 기숙사에 올라오니 스태프를 하고 있었다. 아이 힘들어. 그래도 곧 끝난다니 매우 뿌듯쓰